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국가간 행복과 불행 토픽 비교 분석¹ :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Comparative Analysis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using Topic Modeling: Korea, U.S., U.K., and Brazil

이 소 현 (Lee, So-Hyun)

이 연 경 (Lee, Yun-Kyung)

송 의 령 (Song, Eui-ryung)

김 희 웅 (Kim, Hee-Woong)²

ABSTRACT

Recently, 'happiness' has become a major issue of national level, exceeding the matter of personal issue. Especially, Korea has actually increased its GDP by focusing on the economic growth for decades, and now it has achieved the economic/ technical development as an IT power. However, Korean people's satisfaction with life called 'happiness index' is moving back every year.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national happiness by mentioning it as an essential issue in the national level,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related to it. This study drew measures to enhance happiness by extracting happiness factors and unhappiness factors of Korea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Especially, it aims to analyze, compare, and apply happiness factors and unhappiness factors of three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Brazil with higher happiness indexes than Korea. For this, through the topic modeling of text mining technique, postings including keywords about happiness and unhappiness were collected/ analyzed from Twitter of Korea, the US, UK, and Brazi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measures to increase happiness and to decrease unhappiness by mining/ analyzing the actual public opinions about happiness and unhappiness in four countries like Korea, the US, UK, and Brazil by using the topic modeling. Through this,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people could be improved by suggesting measures to enhance happiness and to decrease unhappiness in the level of individual, family, society, and government.

Keywords: Happiness; Unhappiness; Social network service; Text mining; Topic modeling

¹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711).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 선도연구사업(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2016-22-0045).

논문접수일: 2017년 7월 6일; 1차 수정: 2017년 9월 14일

² 교신저자

1. 서론

최근 행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행복감이란 개인의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된다. 행복은 이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주요 의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United Nations)은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개발 중심의 정책 보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경제 성장에 몰두한 결과, 단기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기술적으로도 세계 IT 강대국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기술적 발전에 비해 한국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노동시간 연간 2113 시간으로 2위, 자살률 1위, 출산률은 최하위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38 점을 기록하여 전 세계 155개국중 56위에 불과하였다.² 하지만, 행복 지수로 행복의 모든 부분을 측정 및 판단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때, 그 기분에 상응하는 객관적, 주관적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의 행복이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가'이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 즉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면서 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의 행복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한된 변수 내에서 경제적 분야의 객관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명소 외 2003; 김명소·한영석 2006; 이훈구 2004). 하지만, 행복은 경제적 요

인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어떤 요인들이 행복을 증진 또는 경감시키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복요인과 불행요인을 도출하여 행복요인은 증진시키고 불행요인은 경감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보다 더 높은 행복지수를 가진 타 국가들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발행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47위) 이외에 한국보다 더 높은 행복 지수를 나타낸 미국(15위), 브라질(16위), 영국(21위)의 3개국을 선정하여 행복과 불행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브라질을 각각 서양, 중남미,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로 지정하고 각 국가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과 불행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Helliwell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미국, 브라질, 영국 총 4개 국가의 행복-불행과 관련한 키워드에 대하여 추출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키워드 수준에서의 트렌드 분석이 갖는 단일 단어의 의미 파악의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하여 텍스트 문서 집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반적 주제 및 함축된 의미를 도출하는 기법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행복과 불행에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Mallet 2015).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실제 대중의 의견을 마이닝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행복의 증대와 불행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³ 중도일보, 2017.04.19.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4182537

2. 개념적 배경

2.1 행복

행복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부족하며, 하나의 의미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Jaafar et al. 2012). 행복은 개인과 개성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 만족감이 성취된 심리상태로 좌우되기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라고 정의 하였으며, 행복이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 발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행복은 상대적이며 이전에 충족하지 못하였던 어떤 상태가 충족되었을 경우, 그것은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복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소득, 직업, 거시적 경제 지표 등 객관적 요인에 한정하여 분석되어 왔다(김명소 외 2003; 김명소·한영석 2006; 이훈구 2004).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은 인간이 지각하는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Campbell 1976).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해서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Skynews(2015)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한 것만 보아도 경제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 행복 지표는 인간의 행복 요소를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Campbell 1976).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행복의 척도가 아닌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Diener et al.(1985, 1999)은 행복과 관련하여 주관적 삶의 질은 정서적인 영역과 인지적인 영역으로 구분된

다고 하였다.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말하며, 이는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즐거운 감정이 많고, 불쾌한 감정이 적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인지적 차원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또는 영역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김명소 2004). Jaafar et al.(2012)은 주관적 행복감을 잦은 긍정적 영향, 드문 부정적 영향,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장 주된 요소로 보고 생활 전체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를 유쾌감, 불쾌감, 만족도 평가차원, 평가영역의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권석만 2010). 그 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명소 외 2002; 김범준 2011; 양승준 외 2016; 유경·이주일 2010; 임은기·정태연 2009; 한기혜 외 2008). 하지만 본 연구들에서는 대학생, 여성 또는 노인이라는 특정한 요소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거나 국내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한계점이 있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와 같은 한가지 분야가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한 객관적, 주관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복과 관련한 요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비교의 대상으로 불쾌한 감정 즉, 불행의 요인들도 함께 도출하여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전유희 외 2014) 각 개인들이 다양한 영역과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행복과 불행 관련 요인들을 도출한다. 특히, 한국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더 높은 행복지수를

가지는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3개국의 행복과 불행 요인들도 함께 도출하고 이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차별적인 행복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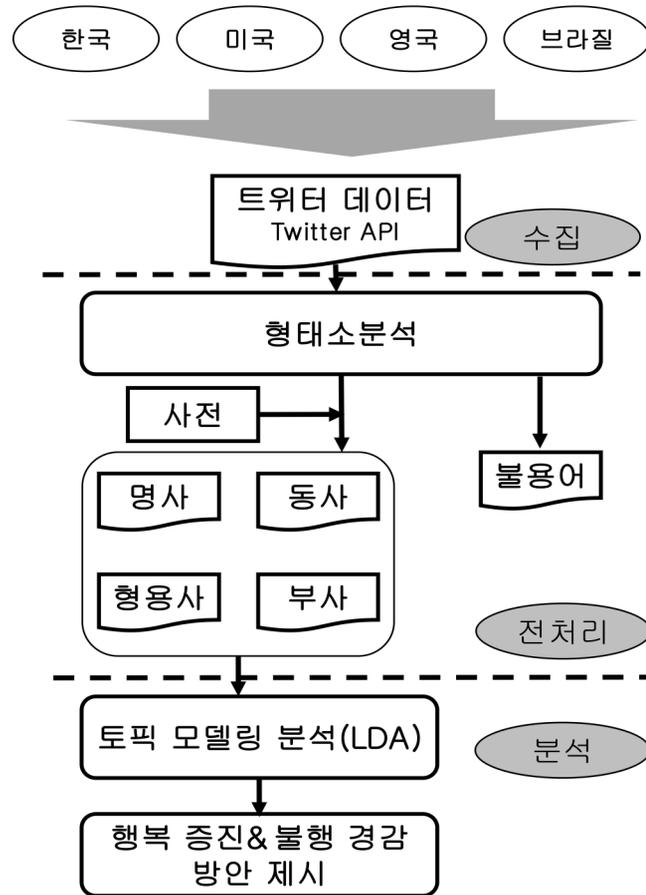
2.2 토픽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각 문헌을 주제(Topic)의 확률적 혼합체로 표현하고, 텍스트 정보에 잠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찾기 위해 고안된 통계적 추론 기법이다(Blei et al. 2003).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으로써 높은 성능과 편의성으로 인해 토픽 모델링 분야에서 표준적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LDA는 알고리즘의 단순성, 데이터 차원 축소의 유용성,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는 주제 생산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Mimno and McCallum 2008). 이는 많은 문서들 안에서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토픽을 발견하기 위한 확률적인 생성 모델이다(Weng et al. 2010). 즉, 텍스트 문서 내의 단어들어 어떤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고, 여기서 각 문서들은 하나의 토픽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토픽에 의해 확률적으로 표현된다(이상연·이건명 2014; Weng et al. 2010). 분석방법은 각 문서의 주제는 소수의 단어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어의 출현은 문서의 주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토픽 모델링이 수행된다(Blei et al. 2003). 즉, 특정 주제들의 집합이라고 가정된 한 문헌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이 결과 값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단어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정(Dirichlet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단어 생성 조건에 따라 사후확률을 추론하며 Blei(2003)의 확률적 그래프 모델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이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브라질 각 국가의 트위터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 및 불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 및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절차를 나타내며 크게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단계로 나뉜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1로 약 50일 동안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 4개국의 트위터(Twitter) 계정에 올라온 행복과 불행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행복과 불행에 관한 키워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삶의 질 결정모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행복의 결정 요소들을 경제적 요소(소득 및 생활수준, 학력, 여가, 직업, 주택), 사회관계적 요소(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계), 환경적 요소(환경, 재난, 치안), 사회심리적 요소(성격, 문화), 제도적 요소(사회보장, 민주주의), 신체적 요소(건강, 연령, 성별)로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에 포함된 요인들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위 키워드들과 함께 행복과 불행을 각각 검색하여 출현하는 데이터를 얻었다. 즉, '행복, 소득', '불행, 소득' '행복, 건강', '불행, 건강' 등 행복과 불행을 각 키워드와 함께 검색하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였다. 또한, 행복과 불행의 키워드 자체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수집 과정은 트위터(Twitter) API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358,098건의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표 1> 참조). 트위터를 통해 4개국의 수집된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행복과 불행과 관련한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과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행복과 불행 관련 요인들을 해석하였다. 특히, 각 국가의 행복과 불행과 관련한 데이터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 데이터 분석 절차

<표 1> 4개국의 데이터 수집 기간

국가	데이터 수집기간	수집된 트윗 수 (행복/불행)
한국	2016.09.01 ~ 2016.10.21	(50,154/38,863)
미국	2016.09.01 ~ 2016.10.21	(72,114/47,620)
영국	2016.09.01 ~ 2016.10.21	(49,205/27,958)
브라질	2016.09.01 ~ 2016.10.21	(41,558/30,626)
총 수집된 트윗 수	358,098건 (행복: 213,031건/ 불행:145,067건)	

3.2 데이터 전처리

웹 크롤링(Web Crawling)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제 처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한국의 행복 및 불행 관련 데이터들은 JAVA 라이브러리인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조사, 감탄사, 부사 등의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특정한 의미를 가진 명사 형태의 단어를 중심으로 행복 및 불행 관련 토픽들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문장을 문법적, 관계적 의미를 내포하는 각각의 단어로 나누어 이에 대한 형태소 속성을 추출하고 단어의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명사 형태소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명사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JAVA의 Stanford NLP를 사용하였다. Stanford NLP는 영어로 된 언어를 자연어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Stanford NLP 역시 불필요한 품사를 제외하고 특정한 의미를 가질만한 영어의 명사 형태 단어들을 도출하는데 이용되었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수집한 데이터들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포르투갈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Stanford NLP를 통해 자연어 처리과정을 거쳤다.

3.3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처리가 끝난 후, 본 연구에서는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각 국가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키워드를 산출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의 대표 기법인 Mallet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을 사용한 후 각 국가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키워드들이 선별되면 그들을 비교 및 분석한 후에 한 집합의 키워드들을 대표적으로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토픽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

복과 불행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키워드의 경우에는 행복과 불행의 요인에 모두 반영시켰다. 토픽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도출된 키워드들의 서로 연관성 있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자들과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토픽을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출된 키워드들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은 기존 관련 문헌을 참조하였다. 행복 및 불행 관련 키워드 집합들에 주제를 정한 후에는 이들을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행복과 불행 요인을 해석하였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 국가의 행복과 불행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행복 증진 및 불행 감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의 각 국가별 행복과 불행 관련 토픽과 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나열하고, 각 국가의 행복과 불행 요소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4.1 한국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토픽 모델링

한국의 행복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은 <표 2>와 같다. 먼저, 트위터, 인스타그램, 포스팅, 일상스타그램(일상생활과 인스타그램의 합성어), 셀스타그램(셀피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과 같은 키워드들을 통하여 ‘SNS’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토픽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들을 통하여 한 때 페이스북에 집중되었던 SNS 사용이 최근 인스타그램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치맥(치킨과 맥주),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육류 중심의 ‘음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⁴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식’의 유관순, 일본인, 역사 등의 키워드가 아직도 일본과의 역사분쟁 및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토픽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애국심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행복감이 차별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행복 관련 토픽으로 ‘연예인’이 도출되었으며 키워드에서 수 많은 가수 및 연기자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 밖에

도 영어, 자격증, 취업 등의 ‘자기계발’이 행복증진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예, 문화 생활, 수입이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행복 토픽 대부분이 ‘자기계발’, ‘연애’, ‘문화생활’, ‘연예인’, ‘SNS’, 그리고 ‘음식’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한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 중 ‘불안한 미래’는 미래, 걱정, 선택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특히, 20대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걱정과 그런 상황에서 빨리 결정

<표 2> 한국의 행복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	주요 구성 단어
자기계발	인생, 기대, 수업, 영어, 자격증, 학원, 고용, 꿈
역사의식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일본인, 유관순, 진보, 조선, 한국사
연애	사랑, 로맨틱, 프로포즈, 아드레날린, 하트, 커플링
문화생활	시, 페스티벌, 장르, 엔딩, 영화, 뮤지컬, 책, 박람회
기념일	생일, 나이, 이벤트, 축하, 감사
연예인	레드벨벳, 오혁, 종현, 슈퍼주니어, 공연, 화보집, 뮤직비디오
SNS	인스타그램, 포스팅, 트윗, 모바일, 셀스타그램, 일상스타그램
음식	무한리필, 밥도둑, 술, 치킨, 치즈, 소고기, 돈까스, 통조림
수입	돈, 은행, 대출, 금리, 저축, 신용, 주식, 상속

<표 3> 한국의 불행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명	주요 구성 단어
불안한 미래	미래, 걱정, 생각, 예상, 빨리, 선택, 대비
인간 관계	사람, 만남, 의식, 관계, 인간관계
성별 갈등	남자, 여자, 평등, 불평등, 공감, 불공평
치열한 일상	오늘, 하루, 일어나, 지금, 어서, 노력
불운	행운, 모든, 운명, 변수, 불행
우울함	우울, 정말, 너무, 생각, 우울함
왕따	사람, 본인, 협박, 고통, 요구, 왕따
지나친 생각	생각, 너무, 필요, 이유, 고민
삶의 제약	절대로, 삶, 단막, 빨리, 한계, 제약

⁴ 중앙일보, "육식 한국. 소, 닭고기 소비 사상 최대," Retrieved December 15, 2015, Available: <http://news.joins.com/article/18486097>

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이 불행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취업난이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인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며 이는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구직을 하고 있는 20대 뿐만 아니라 이미 구직의 문턱을 뛰어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40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표 3>의 대부분의 불행 토픽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여자, 평등, 사람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인간관계’, 특히 ‘성별갈등’이 불행 토픽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2014년 남녀 평등지수 순위에서 총 142국 중 115위를 차지한 한국의 심각한 남녀 불평등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왕따’가 불행 토픽으로 도출되어 이 또한 한국인들의 불행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한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 중 ‘불안한 미래’는 미래, 걱정, 선택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특히, 20대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걱정과 그런 상황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이 불행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취업난이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인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며 이는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구직을 하고 있는 20대 뿐만 아니라 이미 구직의 문턱을 뛰어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40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표 3>의 대부분의 불행 토픽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남자, 여자, 평등, 사람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인간관계’, 특히 ‘성별갈등’이 불행 토픽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2014년 남녀 평등지수 순위에서 총 142국 중 115위를 차지한 한국의 심각한 남녀 불평등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⁵ 그 밖에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왕따’가 불행 토픽으로 도출되어 이 또한 한국인들의 불행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2 미국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토픽 모델링

<표 4>는 미국의 행복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을 나타내며, 미국의 행복 토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중심적 문화와 자기 도전이 행복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도출된 키워드에서 종종 grandma(할머니), sister(자매), baby(아기), daddy(아빠), husband(남편) 등의 가족 구성원이 언급되며 가족을 이루는 과정인 ‘Wedding(결혼)’ 또한 행복 토픽의 하나로 도출되었다. 게다가 행복 관련 토픽의 ‘Birthday(생일)’는 first-born(처음태어난), blessings(축복), family(가족)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가족의 증진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관대한 결혼문화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정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였다(HuffingtonPost 2015).

다음으로 adventure(모험), crossfit(크로스핏), challenge(도전), mission(미션) 등의 키워드를 통해 ‘Challenges(도전)’과 magazines(매거진), tattoo(타투), things(사물) 등의 키워드를 통한 ‘Interests(흥미)’, 그리고 ‘Gratitude(감사)’의 토픽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eacher(선생님), coach(코치), supervisor(관리자)과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상대 뿐만 아니라 actress(여배우), farmer(농부), chefs(요리사), labor(노동자) 등 사회에

⁵ 주간경향 (2017)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6071822481&code=115>

<표 4> 미국의 행복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	주요 구성 단어
Birthday	Happy, Birthday, Firstborn, Family, Bday, Happy Birthday, Blessing
Entertainment	Party, Celebration, Dancing, Hollywood, Downtown, Disney, Summer Fling
Foods	Grill, Beer, Wine, Food, Sushi, Steak, Dinner, Brunch
Aesthetic	Cute, Selfie, Shopping, Fashion, Style, Art
Family	Husband, Grandma, Twin, Sister, Partner, Baby, Daddy, Family, Heart
Challenges	Challenge, Motivation, Cross Fit, Bid, Mission, New, Adventure, Founder, Limit
Gratitude	Teacher, Coach, Labor, Chef, Favorite, Supervisor, Farmer, Actress
Interests	Cheerleading, Magazines, Quilt, Sakura, Japanese Nail, Tattoo, Healthy Recipe
Wedding	Anniversary, Wedding, Date, Marriage, Finally, Couples, Married, Wife, Bless

<표 5> 미국의 불행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명	주요 구성 단어
Accidents	Shotguns, Terror, Airlines, Rescue, Shot, Force, Flight, Crime, Blaster
Death	Die, Worry, Pain, Demolish, Hot, Breathe, Shoot, Crime
Broken Relationship	Boyfriend, Years, Break, Busy, Trust, Couple, Date, Tipsy, Double
Addiction	Weeds, Fine, Catalyst, Piercing, Addiction, Academy, Celeb, Risky
Night life	Club, Beer, Late, Friday, Drink, Bar, Last, Puke
Extravagance	New York, Hotel, Brooklyn, Broadway, Starbucks, Steakhouse, Lobster
Authorities	Super, Honor, Guidance, President, Kill, Senior, Imperial, Boss
Loneliness	Unhappy, Anxiety, Feel, Sole, Bad, Sorry, Individual, Refuse, Empty
Health Concerns	Doctor, Health, Healthcare, Bless, Young, Gum, Workout, Fitness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적으로 미국인들은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러우며 이는 감사의 표현을 전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들은 행복이란 개개인의 노력에 달렸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마음가짐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행복 요인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Japanese(일본인), sushi(초밥), sakura(벚꽃), Japanese nail(일본의 네일) 등을 통해 미국인들이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PEW Research Center(2015)에서 발표한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일본인들의 미국에 대한 시선보다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시선이 더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 결과와 일관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은 <표 5>와 같다. 미국의 불행요소는 shoot(쏘다), weeds(마리화나), fine(벌금) 등의 키워드들을 통해 총기 및 마약의 합법화로 인한 각종 사건들이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미국인들의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픽 ‘Accident(사건)’에서 도출된 키워

드 flights(비행)와 airlines(항공)는 미국의 9.11 테러가 아직도 미국인의 불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부, 자유, 평등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Extravagance(사치)’와 ‘Authorities(권위)’가 불행 관련 토픽들로 나타났다. 미국을 대표하는 화려한 도시의 뉴욕(New York), 그 곳의 문화 중심지 브로드웨이(Broadway), 그리고 party(파티), hotel(호텔), starbucks(스타벅스), lobster(랍스타) 등의 키워드들이 불행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super(감독자), president(회장), senior(연장자), highschool(고등학교), imperial(제국의)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Authorities(권위)’가 미국의 불행 토픽 중 하나로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회의 계층화 등이 불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Who Rules America 2015).

미국의 불행 키워드로부터 나타난 미국만의 특징 중 하나는 놀이문화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토픽이자 불행 관련 토픽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행복요소의 놀이문화로 도출된 ‘Entertainment(오락)’의 토픽은 disney(디즈니), buildabear(빌드어베어), summerfling(여름여행), roadtrip(도보여행) 등 문화생활이나 간단한 파티, 여행인 반면 불행 요소로서의 놀이문화는 ‘Night life(밤의유흥)’의 토픽으로써 club(클럽), late(늦은), bar(바), drink(음주), puke(토하다) 등의 키워드를 통해 늦은 시간의 과도한 음주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과 불행 관련 토픽으로 같은 놀이문화를 나타내지만 지나친 음주는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Loneliness(외로움)’과 ‘Health concern(건강문제)’가 미국인들의 불행을 유발하는 토픽으로 나타났다. 토픽 ‘Health concern(건강문제)’과 관련해서는 에볼라, 메르스 등 국제적인 질병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건강문제가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토픽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4.3 영국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토픽 모델링

<표 6>은 영국의 행복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을 나타내며 영국의 행복 관련 토픽은 대체적으로 영국의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토픽 ‘Self esteem(자존감)’의 키워드인 money(돈), pride(자부심), confident(자신감있는), famous(유명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인들은 자신에 대한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타인과의 활동 보다는 자신의 ‘취미(Hobbies),’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Life values),’ 그리고 본인의 ‘성취(Accomplishments)’가 행복 토픽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아 영국인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하여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개인에서 좀 더 확장된 인간관계는 ‘가족(family)’이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키워드에는 미국과 비슷하게 mom(엄마), dad(아빠), brother(형제), sister(자매), son(아들), wife(와이프) 등 가족구성원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도 본인 중심의 가족공동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영국 등 서양에서 가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SNS에서 공유하는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다른 차별적인 요인이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가족보다 더 확장된 인간관계는 ‘British pride(영국인 자부심)’ 토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인들은 영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토픽의 키워드에는 liverpool(리버풀), london(런던), poetry(시), bbc(BBC), Edinburgh(에든버러) 등으로 영국인들은 축구, 도시, 문화, 방송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Statista 2015). 실제로 영국의 통계 웹사이트 The Statistics Portal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인임이 자랑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80%가 넘었다. 이 또한 거시적인 측

면으로 보면 영국인에 국한된 행복감이므로 영국인의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불행 관련 토픽들은 행복 관련 요소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다(<표 7> 참조). 영국인들이 자존감(self esteem)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만큼 그것을 위협하는 ‘Threat(위협)’의 토픽이 불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replacement(대체), change(변화), delay(지연), depression(우울함), competitor(경쟁자), contest(대회) 등의 키워

드를 통해 남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불행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family)의 행복감이 큰 만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Sense of loss(상실감)’도 불행 토픽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 토픽 중 ‘British pride(영국인 자부심)’를 해치는 불행 토픽도 있었는데 이는 ‘Losing sports(지는 경기)’ 그리고 ‘Defeat(패배)’에서 나타난다. 특히 영국인들은 축구경기 패배로부터 불행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것이 lose(상실), result(결과),

<표 6> 영국의 행복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	주요 구성 단어
Self Esteem	Happy, Pride, People, Power, Money, Know, Famous, Confident, Moment
Hobbies	Cat, Halloween, Tattoo, Singing, Vegan, Health, Makeup, Yoga, Photography
Foods	Cranberry, Panne, Vegan, Deer, Avocado, Chia, Pint, Booze, Cafe, European
Celebration	Birthday, Party, Friday, Today, Weekend, Night, Marry, Baby, Celebration
Family	Mum, Dad, Lady, Babe, Person, Bro, Sister, BFF, Son, Wife
Accomplishments	Achievement, Sport, Mission, Win, Score, Team, Performance, Golf, Match
British Pride	British, Liverpool, Manchester, Edinburgh, England, UK, London, BBC
Life Values	Mylife, Dreams, Respect, Everyday, Love, Hope, Gratitude, Peace, Joy
SNS	Photo, No Filter, View, Instagram, New, Hot, Chanel, Follow

<표 7> 영국의 불행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명	주요 구성 단어
Threat	Contest, Life, Problem, Replacement, Competitor, Change, Depression, Hate, Delay
Sense of Loss	Miss, Time, Friends, Lose, Mum, Exist, People, Youth, Send, Late
Predicaments	Business, Servitude, Malicious, Complaint, Grumpy, Unhappy, Trouble, Look
Defeat	Battle, Game, Time, Mind, Misfortune, Result, Lose, Thought, Score, Injury
Economic Struggle	Pay, Wage, Low, Tax, Work, Economy, Commit, Suicide, Want, Hard Life, Money
Relative Deprivation	Sweet, Gold, Boss, Neighbor, Hate, Mercedes, Suede, Crystal
Losing Sports	Training, Chelsea, Chelsea TV, Impossible, Dead, Fan, Winner, Swansea, Challenge
Insufficiency	Eat, Thing, Food, Face, Homeless, Message, Situation, Coat, Camera
Tough Life	Bully, Labor, Fail, Realize, Lords, Bad, Upset, Embarrassing, Dominate, Depression

game(게임), score(점수) 등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패배하는 것에서 불행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영국인들의 불행 토픽은 영국의 경기 불황과 영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하기도 했다. 토픽 ‘Economic struggle(경제적 불안)’의 키워드 pay(지불하다), wage(임금), tax(세금), economy(경제), hard-life(힘든생활)를 통해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이 불행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Business Insider UK 2015). 뿐만 아니라, neighbor(이웃), couple(커플), gold(금), hate(싫어하다), crystal(크리스탈), mercedes-Benz(벤츠)와 같은 키워드들로부터 ‘Relative

deprivation(상대적 박탈)’의 토픽이 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영국인들의 성향 또한 알 수 있다(Demakakos et al. 2006).

4.4 브라질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토픽 모델링

<표 8>은 브라질의 행복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을 나타내며 브라질의 행복 토픽들은 전반적으로 느긋한 남미의 특징을 반영한다. 행복과 관련된 ‘holiday(휴일), ‘weekend(주말), ‘Christmas(크리스마스), ‘New Year(새해)’과 같은 토픽들의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festival(축제), music(음악), meet(만나

<표 8> 브라질의 행복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명	주요 구성 단어
Holiday	Happy, Enjoy, Day, Family, Friend, Family, Music, Good Enjoy, life
Christmas	Santa, Happy, Love, December, Gift, Father, Jesus, Family, kids, tree
Youth	Youth, immortal, health, pretty, young, age, happiness, simple, beauty, life
New Year	New, start, begin, wishes, life, family, cheers, friend, ending, love
SNS	Twitter, page, videos, Facebook, Internet, social, post, guys, feel, blog
Children	Children, love, cute, baby, innocent, adore, girl, precious, family, lovely
Experiences	Learn, adventure, challenge, opportunity, school, thanks, student, show, ways
Relationships	Love, affection, pretty, body, relationship, boyfriend. Lover, promise, sweet, talk
Family	Love, mother, father, uncle, children, together, people, anniversary, thank, people

<표 9> 브라질의 불행에 관한 토픽 모델링

토픽명	주요 구성 단어
Emotional Misery	Miserable, life, people, end, unhappiness, no, loathe, upside
Regarded as an idiot	Poor, idiot, cry, thing, friend, thing, shield, unfortunate
Personal crisis	Bother, person, crisis, sick, rotten, low, depression, spirit, unfortunate
Desire to be liked	Man, like, say, want, fame, look, progress, agree
Money problem	Money, wrong, mental, rich, than, know, feel, others, angry, loss
Relationship	Stay, admit, sorry, disturb, nervous, damn, people, relationships, us
No future	No, plan, reason, misfortune, house, future, matter, ask, others, plan
Body Image	Gram, girl, guy, breast, body, sad, chat, say, appear, mine
Death	Die, unfortunate, breaking, close, forget, human, end

다), positive(긍정적인), happy(행복한), cheer(환호)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브라질이 축제를 즐기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사람들의 행복감은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만이 행복 토픽으로 나타난 미국, 영국과는 달리 브라질은 love(사랑), couple(커플)의 키워드들을 통해 연인 관계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포함되는 점이 눈에 띄었다. 가족과 연관되는 브라질의 행복 토픽으로는 'Children(아이들)'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브라질에서는 'Youth(젊음)'가 행복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브라질의 불행 관련 토픽들과 주요 키워드들은 <표 9>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행복 관련 토픽과는 다르게 브라질의 불행 관련 토픽들은 자유롭고 열정적인 브라질의 이미지와 상반되었다. 브라질 사람들은 'Body image(몸매, 다이어트)', 'Regarded as an idiot(바보로 취급받는 것)', 그리고 'Desire to be liked(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토픽들에서 알 수 있듯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많이 썼다. 또한 idiot(바보), like(좋아하다), fame(명성), body(몸매), girl(소녀), guy(남자)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이성에게 무시당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행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브라질의 다른 불행 관련 토픽인 'Emotional misery(감정적 고통)' 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충분한 관심과 시선을 끌지 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는 불행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브라질 사람들의 불행 또한 경제 불황으로 'Money problem(경제문제)'와 'No plan for future(불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4개국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토픽들을 트위터를 통해 수집하고 각 국가의 행복 및 불행에 관한 토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4개국의 공통된 토픽의 경우, 각 토픽의 구성 키워드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차별성 있는 토픽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차이로 유추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 관련 토픽으로는 가족, 연애, 문화생활, 생일, SNS, 그리고 음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통적으로 도출된 불행 관련 토픽으로는 대부분 '죽음'과 관련된 토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불안한 미래, 인간관계, 외로움, 이미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위협 등의 토픽들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국가별로 다르게 도출된 행복 관련 토픽으로는 전반적인 행복 유발 요인이 문화 또는 특성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났다. 행복 관련 공통 토픽이었던 음식과 문화생활의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들에 차이가 있었다. 불행 관련 토픽으로는 박탈감, 외모, 그리고 나라별 위협 요소가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각 국가의 문화적 또는 사회 분위기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5.1 4개국의 행복 토픽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 10>은 국가 별 행복 관련 토픽들을 비교한 것으로 4개국의 유사한 토픽들은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한국의 '연애' 토픽과 브라질의 연애 중심의 'Relationship(관계)' 토픽의 경우 공통적인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영국, 브라질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행복 요소에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영국은 가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국과 브라질은 연애가 행복

<표 10> 국가별 행복 토픽 비교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연애	Interests	Self esteem	Relationship
문화생활	Entertainment	Celebrations	Christmas
SNS 즐거움	Aesthetic	SNS	SNS
기념일	Birthday	Hobbies	Youth
음식	Foods	Foods	New Year
자기계발	Family	Family	Family
역사인식	Challenges	British pride	Children
연예인	Gratitude	Life values	Experiences
수입	Wedding	Accomplishments	Holiday

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생활(entertainment)’의 토픽을 살펴보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공통되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생활토픽의 키워드들에는 뮤지컬, 박람회, 강연, 책 등 교양에 중점을 둔 활동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영국과 미국에는 party(파티), celebration(기념행사) 등의 파티 관련 활동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문화생활보다는 전반적인 휴일, 기념일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토픽이 주로 나타났다. 염동섭·유승엽(2012)에 따르면, 한국이 파티생활 보다는 교양있는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을 트위터와 같은 공개적인 SNS를 통해 보여 주므로써 상대적인 우월감과 과시욕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음식도 행복의 공통 토픽으로 도출되었지만 각 국가의 구성 키워드에 차이점을 보였다. 미국은 grill(구운고기), steak(스테이크), pizza(피자) 등 밀가루나 육류 중심의 음식을, 한국은 치킨, 술, 소고기, 치맥 등 술과 함께 어울려 먹는 음식을, 그리고 영국은 European(유럽의), avocado(아보카도), cranberry(크렌베리), paner(빠네) 등 유럽파인 파스타나 웰빙에 신경 쓰는 음식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음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에서는 ‘역사인식’과 ‘British Pride(영국인 자부심)’라는 토픽이 추출됨으로써 애국심이 행복의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으로 발전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복 관련 토픽들을 제외하면,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에서 다르게 도출된 행복 관련 토픽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별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복 관련 토픽들은 ‘자기계발’과 ‘연예인’이다. 최근 셀프 헬프(Self-help)라고 불리는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한국의 서점 현황만 보아도 한국인들이 자기 계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해 경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행복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의 행복 관련 토픽에서 눈에 띄는 토픽은 ‘연예인’이었다. 현재 한국의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는 케이팝(K-pop)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화려한 외모와 수준급의 춤과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등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즉, 이상으로서의 연예인 그리고 팬덤

이라는 문화가 확산된 한국에서 ‘연예인’이라는 토픽은 행복의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토픽은 ‘Aesthetic(미)’이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팝 컬처(pop-culture)의 화려한 문화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에는 미에 대한 기준이 방대하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미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미’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은 그 어느 국가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영국의 행복 관련 토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Self-esteem(자존감),’ ‘Accomplishment(성취감)’ 등 개인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에 관한 주제들이 주로 도출되었다. 즉, 영국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행복의 기준을 본인 자신에 놓고 이를 신뢰하는 영국인들의 태도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불행을 느끼는 한국과 상반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행복 관련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유난히 휴일 및 휴식에 관한 단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토픽으로 ‘Holiday(휴일),’ 을 통하여 브라질 국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휴식과 즐기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눈에 띄는 토픽은 ‘Children(아이들)’이다. 이는 미국, 영국, 브라질 3개국의 공통 토픽으로 뽑혔던 ‘Family(가족)’의 토픽과 연관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토픽을 통하여 브라질 국민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가치를 두고 이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요인 중 가족 토픽이 부재한 한국의 가족들과의 관계 및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2 4개국의 불행 토픽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 11>은 국가 별 불행 관련 토픽들을 비교한 것으로 4개국의 유사한 불행 관련 토픽들은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각 국가는 유사한 불행 관련 토픽들을 나

타내지만, 구성 키워드를 보면 국가 별로 불행을 유발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영국과 브라질 모두 경제적 문제가 불행 토픽으로 나타났지만, 영국은 Neighbor(이웃)이 키워드로 추출됨으로써 타인과의 경제력 비교가 불행의 원인인 반면, 브라질은 비교가 아닌 그저 본인의 경제적 무능력이 불행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국의 불행 토픽 중 하나인 ‘Insufficiency(불충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영국인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물질적 결핍이 불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영국의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행은 미국의 ‘Extravagance(사치)’와 ‘Authority(권위)’ 토픽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또한 타인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사치, 그리고 다른 사회적 계층 또는 계급으로부터 불행을 느낀다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 드러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치열한 일상, 불확실한 미래 등과 같은 토픽들을 통하여 본인 자신의 불안한 상황에서 불행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불행 관련 토픽 ‘Threat(위협)’의 키워드 분석으로 각 국가별 위협 요소의 차이점과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terror(테러), shotgun(엽총), blaster(블래스터), flights(비행) 등의 키워드를 통해 아직도 미국인들은 테러, 총기, 비행기 등을 위협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행 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life(삶), problem(문제), replacement(대체), delay(지연), competitor(경쟁자)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개인이 경쟁력을 잃는 것에 불행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비해 한국, 영국, 브라질은 테러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적게 혹은 아예 불행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을 통한 불행 관련 토픽으로 브라질에서는 ‘Body image(몸매 혹은 다이어트)’가 불행 토픽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외모가 불행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브라질은 외적으로 남

들을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미용성형 열풍에도 불구하고 외모 관련 토픽이 도출되지 않은 것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모 결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불행 관련 토픽들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에서 다르게 도출된 불행 토픽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불안한 미래, 남녀 평등, 왕따 문제 등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20대,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행복에서 나타난 ‘자기계발’ 영역의 토픽들과도 연결되어 자기 계발이나 취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요건으로 간주되는 반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박미진 외 2009). 남녀 평등 또한 한국의 불행요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이다. 최근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신조어로 ‘김치녀’는 한국 여자들을 집단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여러 웹사이트 게시판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이용자들이 이러한 성 비하적 단어들을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남성 이용자들은 위의 ‘김치녀’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비난하고, 여성 이용자들은 역으로 ‘김치남’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남성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상대 이성 혐오의 문화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평판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도 사라져야 할 문화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이다. 남들과 다른 것이 틀린 것

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용모, 성격 혹은 사회적 환경은 배타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경쟁사회라는 단어에 걸맞게 남들 만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비교의식이 팽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타성과 결여성에 관한 의식 또한 한국 개인의 행복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문화이며, 불행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불행의 공통된 토픽으로 추출된 주제들 이외에 차별적인 특성의 토픽들로는 ‘Accidents(사고),’ ‘Extravagance(사치),’ ‘Authorities(권위자들),’ 그리고 ‘Health concerns(건강문제)’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짧은 역사에 비해 전쟁, 테러 등 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왔다. 특히 2001년 뉴욕에서 일어난 쌍둥이 빌딩 테러(911 테러)는 사상 초유의 사상자들을 유발하고, 개인적 아픔 및 불행 뿐만이 아닌 국가적 불행을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은 ‘Extravagance(사치)’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화된 미국은 소수의 부자들은 매우 풍족하게 살지만, 중산층을 제외한 하위층과 빈곤층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 길거리에서 삶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가에 부가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가진 자들의 사치스러운 나머지 계층 사람들의 비교를 통한 불행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부터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Authorities(권위자들)’의 토픽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불행의 키워드였다. 미국에서 Authorities(권위자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주로 공권력 및 법 집행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경찰, 사법부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테러 및 전쟁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고, 또 정치인들도 각 정당에 따라 사람들의 애정과 미움을

변갈아 받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권위자들 중 하나인 정치권 세력이 미국인들의 불행의 요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Health concerns(건강문제)’ 토픽과 관련하여 미국인들에게 건강은 시간을 아껴서라도 고려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생계 유지에 바빠 신경 쓸 수 없는 사치품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적 상위층 및 중산층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생활을 통해 자신의 몸매 및 전반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하위층과 빈곤층에게는 우선시 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한다.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보다는 자신 또는 가족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건강관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경 쓸 여유가 없는 하나의 불행 요건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국의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토픽들은 경제적인 것과 주로 연관된 것으로 ‘Relative deprivation(상대적 빈곤),’ ‘Insufficiency(부족함)’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영국이 90년대 후반에 겪은 경제적 공황 및 실업난이 영국 국민의 불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영국 국민

의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었던 그 시절의 여파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의 영국 국민들에게 존재하고 있을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빈곤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도출된 불행 관련 토픽은 ‘Losing sports(지는 경기)’으로 이는 또 다른 불행 토픽인 ‘Defeat(패배)’와 연결될 수 있다. 영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및 리버풀(Liverpool) 등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과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축구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들이 영국의 축구 팀들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도 하다. 축구라는 운동 종목의 종주국으로써 축구에 대해 높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만큼 축구 경기에서의 패배는 실망의 요소로써 그들의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불행 관련 토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Desire to be liked(남들에게 사랑 받고 싶은 마음),’ ‘Body image(몸매, 다이어트)’ 등으로 남의 시선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해변과 미인들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스트레스가 불행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11> 국가별 불행 토픽 비교

한국	미국	영국	브라질
인간관계	Broken relationships	Tough life	Relationship
불안한 미래	Accidents	Predicaments	No future
삶의 제약	Death	Sense of loss	Death
치열한 일상	Addiction	Threat	Personal crisis
불운	Health concerns	Defeat	Body image
우울함	Loneliness	Relative deprivation	Desire to be liked
성별갈등	Authorities	Economic struggle	Money problem
왕따	Night life	Losing sports	Emotional misery
지나친 생각	Extravagance	Insufficiency	Regarded as an idiot

6. 행복 증진 방안 및 시사점

6.1 한국의 행복 증진 방안

본 연구는 행복과 불행에 관한 토픽들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브라질 3개국의 행복 및 불행 토픽과 키워드들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행복 증진과 불행 감소를 위한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행복 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표 12> 참조).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과 성취가 적절한 휴식 및 여가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영어, 자격증, 학원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자기계발’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치열한 일상’이 불행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취미생활을 통해 내면을 가꾸는 것이 개인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는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타 국가들에서 행복 관련 토픽으로 ‘Holiday(휴일),’ ‘Hobby(취미),’ ‘Interests(관심사)’ 등이 도출된 것을 반영하여 한국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취미활동, 여행, 휴가 등과 함께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때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 가정 차원에서는 다른 3개국들이 가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에 관한 키워드가 적었으므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가족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복탄력성(resilience)’ 형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의 구성원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표 12> 한국의 행복 증진 방안

구분	행복 증진 방안
개인 차원	자기계발을 통한 성취가 적절한 휴식 및 여가생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휴식, 여행, 취미활동 등 개인 여가활동 증진
가정 차원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독한 관계 유지 - 가족들과 여가 및 취미활동 공유
사회적(기업) 차원	노동시간의 효율성 - 제도적 노동시간의 준수와 스마트워크 등의 효율적인 일문화 활용 구성원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동과 화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기업내 프로젝트, 워크샵, 멘토링 활동 등 장려
정부 차원	취업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취업의 기회 제공 - 기업에서 실제 요구하는 능력개발을 위한 차별적 교육 제공 복지 정책 및 치안과 관련한 법안의 증진 및 강화 -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 차별적 집단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및 해결책 마련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및 예방안 마련

시간을 늘리고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친구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ield et al. 1995; Videon et al. 2005). 그러므로, 자녀와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좀 더 세심히 보살피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결속력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가지려는 노력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들에서 행복 관련 요인으로 도출된 문화생활, 취미 활동, 음식, 휴가 등의 토픽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갖으며 소통하고,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치열한 경쟁 및 다툼을 조장하기 보다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화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업 자체의 노동시간의 효율성과 지지가 중요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⁷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실제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체제가 야기한 일과 가정의 갈등은 직장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워킹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지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에서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므로써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김용영 외 2015). 또한, 기업 내에서 소외계층의 경우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배려와 화합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서 불행과 관련된 토픽으로 사회적 관계의 악화 및 문제가 언급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치열한 일상이 불행의 토픽으로 함께 언급되었으므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쟁보다는 협동과 화합을 지향하는 기업 분위기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취업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의 행복 및 불행 관련 키워드에서 취업 관련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된 만큼 취업은 한국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실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상승으로 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홍성례 2006). 당장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 정책 및 치안과 관련한 법안을 증진 및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국민 안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경제, 건강, 교육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국가의 혜택 및 서비스로 국민의 행복과 연결된다(양승준 외 2016). 분석결과에서 불행과 관련한 토픽으로 한국에서는 '성별갈등'이 도출되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관련하여 'Extravagance(사치)'와 'Economic struggle(경제적 고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즉, 국민 개개인이 각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

⁶ 문화일보 (20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201032021080002>

⁷ 아주경제 (2017) <http://www.ajunews.com/view/20170322085623379>

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 관련 사건 및 사고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 및 예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 불행에 관한 토픽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SNS 중에서 트위터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SNS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SNS는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140자의 글자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글자 제한이 없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 데이터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의 신뢰성 또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다른 SNS의 데이터까지 확보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행복과 불행에 관한 토픽들을 추출하고 그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즉, 행복과 불행으로 주제를 정하고, 행복에 관한 토픽과 불행에 관한 토픽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관련 토픽의 구분 뿐만 아니라 감성분석을 이용하여 행복과 불행에 해당하는 토픽 별 긍정과 부정의 지수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 토픽에 대한 행복과 불행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행복 증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개국의 행복 및 불행과 관련한 토픽을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행복 증진을 도출한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행복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주요 의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

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행복증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브라질, 한국 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과 불행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국가에서 언급되는 행복 및 불행의 요인이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다르므로 각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시각과 감정 또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밖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 동안의 기념일이나 명절과 같은 각 국가의 시기적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에는 행복지수 10위권 내의 국가들을 포함한 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 및 행복지수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행복 증진과 불행 감소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6.3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의의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행복 요인 도출을 위해 선행 연구들(김명소·한영석 2006; Jaafar et al. 2012)에서 주로 활용해 온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과는 다르게 데이터 분석 기반의 행복과 불행 관련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 집단에서 주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토픽모델링 기법(Blei et al. 2003)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SNS 기반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특히, 행복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객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행복 관련 연구(양승준 외 2016)가 있었지만, 국내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한국의 행복 증진 방안을 도출한 것에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텍스트마이닝의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브라질 3개국

의 행복과 불행 관련 데이터를 함께 추출하여 비교 및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행복과 불행 관련 키워드들만을 추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토픽들과 그 토픽과 키워드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행복과 불행에 같은 토픽이 출현할 경우에는 그 토픽에서 다르게 도출된 키워드들의 분석을 통하여 해석하고, 토픽과 키워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비교 상대 국가들인 미국, 영국, 브라질의 행복과 불행 관련 데이터를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즉, 궁극적으로 한국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타 국가들의 행복과 불행 요인들을 함께 도출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느끼고 있는 행복의 요인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국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핵심 주제를 찾아 현 사회의 트렌드 마이닝을 시행했다는 점이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인문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 분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개념적으로 연구되어왔던 주제를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통해 실질적 제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복 증진 및 불행 경감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복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충족되지 않은 무엇이 충족되었을 때 이전과 비교하여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 관련 요인들뿐만 아니라, 불행 관련 요인들을 함께 도출하여 불행을 경감시킴으로써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함께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미국, 영국, 브라질 3개국의 행복과 불행 관련 요인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도출하였다. 특히, 각 국가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과 불행 요인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행복 증진 방안을 제안한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권석만. 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 pp. 128-129.
2. 김명소. 2004.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및 행복을 위한 제언,”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보고서.
3.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pp. 415-442.
4.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pp. 725-731.
5.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pp. 1-38.
6.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pp. 115-135.
7.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3.

8. 김용영, 오상조, 이희진, 차경진 2015. “스마트워크 사용자의 업무/비업무간 경계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6:4), pp. 133-155.
9.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진로상담: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학회* (10:1), pp. 417-435.
10. 염동섭, 유승엽 2012. “한국 소비자의 명품 소비행동은 어떠한가? - 동기, 혜택 및 손실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3:3), pp. 323-341.
11. 양승준, 이보연, 김희웅 2016. “토픽모델링 기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및 행복 증진 방안 연구,” *지식경영연구* (17:2), pp. 165-185.
12. 유경, 이주일 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pp. 89-104.
13. 이상연, 이건명 2014.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댓글 그래프 기반 소셜 마이닝 기법,”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4:6), pp. 640-645.
14.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 서울: 법문사
15.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 노인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한국노년학* 29, pp. 1141-1158.
16. 전유희, 이대용, 정남호, 구철모 2014. “정체성과 개방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친밀간 대인관계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5:2), pp. 1-21.
17.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학,”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 24-25.
18. 홍성례. 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pp. 37-51.

[국외 문헌]

1. Blei, D. M., Ng, A. Y., and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 993-1022.
2. Business Insider UK 2015. “Citi’s Willem Buiter has called it: we’re about to go into global recession,” Retrieved December 2015, Available: <http://uk.businessinsider.com/global-recession-2015-10>
3.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pp. 117-124.
4. Demakakos, P., Nunn, S., and Nazroo, J. 2006. “Loneliness, Relative Depr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Retirement, Health and Relationships of the Older Population in England*, pp. 297-318
5.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 71-75.
6. Diener, E., Suh, E. M., Lucas, R. E., and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 276-302.
7. Field, T., Lang, C., Yando, R., and Bendell, D. 1995. “Adolescents’ intimacy with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30:117), p. 133.
8. Helliwell, J. F., Layard, R., and Sachs, J. 2015. “World Happiness Report,” Retrieved December 17, 2015, Available: worldhappiness.report
9. Huffingtonpost 2015. “The Truth about

- the divorce rate is surprisingly optimistic,” Retrieved December 15, 2015, Available: http://www.huffingtonpost.com/2014/12/02/divorce-rate-declining-_n_6256956.html
10. Jaafar, J. L., Idris, M. A., Ismuni, J., Fei, Y., Jaafar, S., Ahmad, Z., and Sugandi, Y. S. 2012. “The sources of happiness to the Malaysians and Indonesians: data from a smaller na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65, pp. 549-556.
 11. Mallet 2015. “Topic Modeling,” Retrieved December 17, 2015, Available: <http://mallet.cs.umass.edu/topics.php>
 12. Mimno, D., and McCallum, A. 2008. Modeling career path trajectories.
 13. PEW Research Center 2015. “How Americans and Japanese see each other,” Retrieved December 15, 2015, Available: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4/09/how-americans-and-japanese-see-each-other/>
 14. Skynews 2015. “ $P+(5xE)+(3xH)=\text{Happiness}$,” Retrieved December 17, 2015, Available: <http://news.sky.com/story/153415/p-5xe-3xh-happiness>
 15. Statista 2015. “How proud are you of being British?” Retrieved December 15, 2015, Available: <http://www.statista.com/statistics/304524/british-national-pride-great-britain/>
 16. Videon, T. M. 2005.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o dads matt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1), pp. 55-78.
 17. Weng, J., Lim, E. P., Jiang, J., and He, Q. 2010. “Twiiterrank: finding topic-sensitive influential twitterer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pp. 261-270). ACM.
 18. Who Rules America 2015. “Wealth, income and power,” Retrieved December 15, 2015, Available: <http://www2.ucsc.edu/whorulesamerica/power/wealth.html>

저 자 소 개



이소현 (Lee, So-Hyun)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American University, Kogod School of Business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등이다. 관련 연구들은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ommunications of the ACM,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Database Management 등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연경 (Lee, Yun-Kyung)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창의기술경영학과 학사과정 중에 있으며,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빅데이터 분석,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등이다.



송의령 (Song, Eui-ryung)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창의기술경영학과 학사과정 중에 있으며,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정보경영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컴퓨터 사이언스 등이다.



김희웅 (Kim, Hee-Woo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보시스템학과에서 근무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관리 및 활용 등이다. 관련 연구들은 MIS Quarterl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등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JAIS, IEEE TEM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KrAIS 회장을 역임했다 (2017-2018).